

## 에어드리 한인 램프장로교회 예배 처소 이전

2964 Kingsview Blvd SE Airdrie (King's Court Church)

캘거리 한인교협에 소속된 동포 교회들이 캘거리 시내에 국한되어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남쪽에는 Lethbridge에 레스브릿지 한인교회(박준호 목사), 서쪽에는 Banff 중심가에 밴프 한인교회(최성은 목사), 북쪽에는 Red Deer 에 레드디어 한인교회(김정민 목사)와 레드디어 한인장로교회(정태용 목사)가 자리잡고 있다.

트레일로 들어서서 40분이 채 안 걸리는 Airdrie에 에어드리 한인 램프 장로교회(조성호 목사)가 자리잡고 있다.

캘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인 에어드리시에는 경기도 과천시와의 자매 기념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그곳을 지나는 우리 동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한 타지에서 에어드리시로 전입, 정착하는 동포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띄우고 있다.



그리고 캘거리에서 스토니 트레일을 거쳐 디어퍼트

(사진설명: 2015년 2월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린 에어드리 한인 램프 장로교회는

하러 온 여러 목회자들과 교우들을 맞이하여 강진우(캘

거리 제일 장로교회)목사의 설교를 포함한 기념 예배 순

서를 마치고 기념촬영 순서를 가졌다.

## “오지 마을 한인 그로서리 오히려 재미보고 있어요”

알버타, 사스캐처원 누비는 '현대판 보부상' 씨니 리 사장



알버타 북부, 사스캐처원 쪽 떨어진 작은 마을 곳곳에서 그로서리나 인디언 밴드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다. 트럭에 물품을 가득 싣고 부인과 함께 내륙 곳곳을 누비며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베스트 트레이딩 대표 씨니 리 (이선희) 사장. 어찌 보면 등짐과 붓짐을 메고 촌락 장사를 돌아다니던 옛 보부상과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외진 마을의 한인 그로서리 주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씨니 사장을 웨스트힐허스트 자택에서 만나 그쪽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 컨비니언스나 그로서리는 한인 자영업의 주종이죠. 알버타와 사스캐처원 곳곳에 얼마나 많은 가게가 있습니까.

A : 거래처가 400군데 정도

됩니다. 외곽으로 가면 컨비니언스보다는 그로서리가 주유소가 많습니다. 인디언밴드 그로서리도 전체 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400-1,000명의 마을에 그로서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 250명 마을에 있는 그로서리도 있습니다. 30, 40대 젊은 한인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Q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습니까?

A : 팬데믹속에서도 피자집이 바쁘듯 지난 4월 이후 오지 그로서리들은 오히려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시골에선 슈퍼스토어나 코스코 코압은 멀고 또 가셔도 줄을 서야하니깐 그냥 동네 그로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돈이 있고 시골에서 쓸 곳은 그로서리밖에 없지요.

Q : 어떤 상품들을 취급합니까? 옛 보부상들도 포목이나 어염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고 무게나 부피가 나가



지 않는 상품들을 취급했다는데요.

A : 마찬가지로입니다. 45톤 트럭에 많은 것을 실어야합니다. 새니타이저 마스크 모자 후드 안경 핸드폰 악세사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뒤 관련 도구들이 많이 팔립니다. 종류도 1천개가 넘구요. 한인 그로서리 주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비치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도 효자상품입니다.

Q : LA에선 한인들이 많이 진출하던 스왑밋이 온라인 영향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서리나 컨비니언스의 경우 온라인 영향은 받지 않나요?

A : 캘거리 도심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그로서리들은 주로 오지 시골에 있어 배달이 쉽지 않고 또 느려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눈에 띄는 트렌드의 하나는 초기 그로서리 한인 주인들은 나이가 들고있고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Q : 어떻게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까?

A : 고등학교 졸업후 부모님과 이민왔고 토론토에서 컨비니언스를 했습니다. 그런데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8년 전에 캘거리로 왔습니다. 컨비니언스나 그로서리에 물품을 공급하는 토론토 분과 일을 함께 하다 인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거래처 가면 청소와 디스플레이 도와주고 재고 리턴도 잘 받아주고요. 유대 관계가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자주 가니 토론토에서 원정 오는 사업자들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토 사업자들은 모두 철수하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그런대로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이 쇠퇴하면서 알버타와 사스캐처원 시골 마을의 그로서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독립해서 경쟁구도를 만들어 더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 그로서리 경기가 반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 사업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A : 겨울철 운전이 힘들니다. 무스에 바쳐 차를 폐차시키기도 했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 아찔한 경험도 여러번 했습니다. 오지로 갈수록 장사가 잘 되니 아쩔 수 없지요. 최근에 나는 알버타 북부와 BC주 일부를 맡고 파트너가 사스캐처원과 알버타 남부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일주일 정도 알버타 북부 오지 등을 누빈다. 사업을 더 키워 도매상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Yul Kim 편집위원)

### 힘내세요! 한인 여러분. 코로나 재난 함께 이겨냅시다!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Association

캘거리 한인회  
회장 : 구동현  
주소 : 7008 Farrell Rd SE, Calgary AB T2H 0T2  
전화 : 403-216-4600  
이메일 : cka0607@gmail.com  
웹사이트 : http://calgarykorea.com

**캘거리한인노인회**  
Calgary Korean Seniors Association

캘거리 한인 노인회  
회장 : 안길웅  
연락처 : kilungahn@hotmail.com

자매 단체 노인 대학

**캘거리 한인 여성회 / 코리아 아트 클럽**  
회장 : 고경숙  
주소 : 3530 11a St NE #4, Calgary, AB T2E 6M7  
전화 403-861-8231  
kyoungsookko@gmail.com, heejo  
웹사이트 : calgarykoreanwomen.com

캘거리 한인회 소속 자원 봉사 단체

**도움 나눔**  
Calgary Volunteers

SNS와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캘거리 역사상 최대 규모 네트워킹 행사  
♠ 청춘학개론 ♠

Instagram : dowoom.nanoom

**캘거리 실업인 협회**  
Calgary Korean Unemployed Association

캘거리 실업인 협회  
회장 : 박홍재  
이메일 : kcba@live.ca  
전화 : 403-258-1161  
웹사이트 : www.calgarykcba.com

**캘거리 한인양로원 건립  
실업인협회도 후원합니다**

**캘거리한인장학재단**  
Calgary Korean Scholarship Foundation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 : 길이룡  
전화 : 403) 567-0402  
이메일 : hyunjucho@hotmail.com  
웹사이트 : http://www.calgaryksf.org/

캘거리한인장학재단은 백만불 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유연장 서명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